

4 EU 집행위원회, '유럽혁신법(EIA)' 제안

➔ 유럽연합집행위원회(EC)는 역내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조달 접근성과 EU의 연구개발 공공 조달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럽혁신법(EIA^{*})을 제안('26.9)

* European Innovation Act

● (개요) EIA는 유럽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개발·시험·상용화 및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해 EC가 도입을 제안하는 여러 제도적 조치들을 수록

- EIA는 입법 초안 상태로, EC는 초안 문서를 공개하며 ▲EIA 제안 배경 및 필요성 ▲주요 제도·조치 ▲기대 효과 등을 제시

※ EIA는 향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심의·수정·합의를 거치게 될 전망

- 특히 ▲지식재산(IP) 가치 평가 체계 마련 ▲IP 거래를 지원하는 디지털 장터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접근성을 개선하고, ▲기존 조달지침 밖 연구개발 공공 조달을 위한 EU 공통 규칙을 도입할 것을 중점적으로 제안

● (배경 및 필요성) EIA는 EU 스타트업·스케일업 전략^{*}과 경쟁력 나침반^{**}의 핵심 이니셔티브로, EU의 장기적 경쟁력·번영·기술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

* EU Startup and Scaleup Strategy: EU 스타트업·스케일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정책 패키지 ('25.5)

** Competitiveness Compass: EU가 향후 5년간 역내 경제 활성화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발표한 대규모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('25.1)

- EC에 따르면 유럽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·인재·창의성을 갖추고 있으나, 유럽의 혁신 기업들은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규제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장벽에 직면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지 못하는 실정

- 그 결과 유럽에서 개발된 아이디어가 다른 지역에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

- 이에 EC는 혁신적인 유럽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성장하고,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EIA를 마련

● (제도적 조치와 기대 효과) 'IP 기반 자금 조달' 및 'IP 상용화 지원' 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 및 스케일업을 촉진하고, EU 내 연구개발 공공 조달을 범EU 차원에서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

- 이를 통해 유럽의 혁신 기업들은 성장을 위한 투자를 손쉽게 유치하고, 정부는 행정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

〈 EIA가 제안하는 주요 제도적 조치와 기대 효과 〉

구분	주요 내용
자금 조달 접근성 개선 - 지식재산(IP) 가치 평가 체계와 디지털 장터	• 지식재산(IP)의 가치를 평가하는 EU 공통의 틀(프레임워크)을 마련 - 스타트업·스케일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·특허 등 IP의 가치를 회원국마다 다르게 평가하거나 신뢰도가 낮아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 - 프레임워크는 의무 사항이 아닌, 자율적으로 적용 • IP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범EU형 디지털 장터(마켓플레이스)를 구축 - IP 보유자와 잠재적인 라이선싱·양도 상대방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IP 거래의 탐색 비용과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목적 • 유럽연합 지식재산청(EUIPO) 산하에 역량센터(Competence Centre)를 신설해 가치 평가 체계 및 디지털 장터 운영·관리를 임무를 부여 - 역량센터는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IP 관리, 상용화, 자금 조달 관련 전문적인 지원도 제공 • EC는 이를 통해 기업의 IP 기반 벤처캐피털 및 부채금융이 연간 102억 유로 증가하고, 3,500만 유로의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
조달 절차 개선 - EU 공통의 연구개발(R&D) 공공 조달 규칙 도입	• 기존 조달 지침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 연구개발 공공 조달을 위해 EU 공통의 조달 규칙을 도입 - 상업화 전(前)단계 조달(PCP*)은 연구·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개 공공 구매자(정부 기관 등)와 기업이 위험과 편익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, 조달 결과의 편익이 공공 구매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EU 조달지침 밖에 존재 * Pre-Commercial Procurement: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신기술 또는 혁신적인 시제품의 연구개발 단계를 공공 구매자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구매하기 위해 적용하는 선진 조달 방식 - EU 공통의 새로운 조달 규칙은 공공 구매자가 연구개발 조달을 추진할 때(여러 회원국의 공공 구매자와 공동으로 국경을 넘어 연구개발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포함)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, 기업 및 기타 경제 주체가 연구개발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 • 공공기관 연구개발 조달을 활용해 보건, 교육, 친환경 모빌리티 등 사회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 기술 개발·시험을 지원해 신기술이 시장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• EC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연간 259억 2,000만 유로의 추가 이익을 얻고 공공 구매자들은 연간 1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

- (규제 샌드박스 권고안) 한편, EC는 EIA와 별개로 규제 샌드박스 공통 원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(Council Recommendation)*도 제안

* Proposal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on regulatory sandboxes

-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제한적·통제적으로 혁신을 실험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에 활용할 증거와 교훈을 축적하는 도구
- EC는 회원국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제각각 운영하지 않도록 EU 차원의 공통 정의·설계 원칙·국경 간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

출처 : 유럽연합집행위원회 (2026.9.9.)

https://research-and-innovation.ec.europa.eu/document/download/961e80de-b6a0-4c34-9b2f-b66ea0bb7ee1_enf